

# 전주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 안착

## 시, 마을버스 '바로운' 정상운행 · 시내버스 일부 노선 조정 기존 15개→3개 노선 통합 · 75번 신설... 효율성 · 정시성 확보

전주시는 교통오지를 다니는 마을버스 '바로운'이 지난 12일 정상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조정됨에 따라 시간선제 노선이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혁신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1단계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적은 시 외곽지역 구간을 마을버스(지선)로 대체 운영하고 시내버스의 운행 구간을 단축하고 노선들을 통제 합했다.

구체적으로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 운행했던 시내버스 15개 노선(▲60 ▲109 ▲142 ▲416 ▲423 ▲424 ▲425 ▲428 ▲429 ▲470 ▲473 ▲474 ▲475 ▲479 ▲487)이 폐지되고, 3개 노선(▲400 ▲420 ▲430)으로 통합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21대가 운행했던 시내버스가 10대로 통합 운행되고 400번대 노선의 기종점이 통일되면서 들쭉날쭉했던 배차간격이 사라지고 일정한 배차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효율성 및 정시성을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119, 381, 383번의 기종점을 기존 농협공판장에서 평화동중점, 비전대학교로 변경하면서 그간 교통혼잡이 유발됐던 삼천동과 효자동에 있



전주시는 교통오지를 다니는 마을버스 '바로운'이 지난 12일 정상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조정됨에 따라 시간선제 노선이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는 전차로의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5번 노선 신설로 만성·효천지구 등 신도시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이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단계로 전주·완주 시간선제 노선개편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행정안전부 빅데이터활용과와 함께 개편노선(안) 효과분석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시간선제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시간선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마을버스 도입으로 전주 내부 시간선제가 1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버스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주·완주 시간선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대거 확충

## 안전한 통학로 구축 등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국비 49억원 확보

전주시가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개설하고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시는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국비 4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지난 9월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2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학교, 녹색어머니회의의

협의를 거쳐 통학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와 주차차 단속 카메라 등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학교별로 통학로를 개설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 등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전주초, 금암초, 효자동 등 3곳, 143편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노상주차장 폐지 시에는 교회나 아파트 등 주변 주차장 개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신규 주차시설을 조성해 주차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차차 주민신고제에 대비해 총 14km 구간에 황색복선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단수초 등 34개소에는 과속신호 단속장비를, 전라초 등 3개소에는 신규 신호기를, 반월초 등 4개소에는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평화동양지초 주변에는 신규 통학로를 개설, 북일초, 삼천남초, 오렌지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6편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자전거 단체보험 1인당 83만원 혜택 받아

전주시의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를 당한 전주시민들이 평균 83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총 856명의 시민이 7억1,000만원, 1인당 83만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 자전거 단체보험은 전주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 일어난 사고나 탑승 중 사고, 도로 통행 중인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그간 시는 자전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온라인과 언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해왔다. 특히 시민들 눈에 잘 띄는 시내버스 후면을 활용해 자전거 보험을 안내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가정식 발굴 · 보존 나선다

### 내년 1월 31일까지 인터뷰 참여 30가정 선착순 모집

전주시가 점차 사라져가는 전주 가정식을 찾아 보존한다.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주 가정식의 보존 및 대중화를 위한 인터뷰에 참여할 30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20년 이상 전주에 거주한 부모님 세대(80세 이상)를 모시고 있거나 50세 이상으로 부모님 세대의 가정식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시민이다.

인터뷰 내용은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정식의 구성(상차림) 및 가정의 대표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와 식재료 및 조리방법 등 가정 고유의 음식비법 등이다.

희망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010-8414-0897/010-2556-5911)로 전화하거나 이메일(leesh0897@jnu.ac.kr/koo-coo@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다. 시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발굴된 전주 가정식을 추후 책자 및 영상으로 자료화할 계획이다. 선정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맛의 고장 전주의 음식문화를 널리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다양한 식문화의 도입 및 가정의 세대교체, 외식의 발달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전주 고유의 가정식을 더 늦기 전에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집만의 특색 있는 집밥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새소식(http://www.jonju.go.kr)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는 글로벌컨설팅 등 전주 거주 외국인 13명과 함께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객리단길 등 주요 여행지를 배경으로 해외의 가족,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여행도시 전주 크리스마스 메시지 캠페인 영상'을 제작, 송출한다.

## 여행도시 전주 크리스마스 메시지 캠페인

### 시, 전주 거주 외국인 13명과 해외 가족 · 친구들에게 안부 전하는 영상 제작 · 송출

전주시가 해외의 친구,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며 전주를 알리는 영상을 송출한다.

시는 글로벌컨설팅 등 전주 거주 외국인 13명과 함께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객리단길 등 주요 여행지를 배경으로 해외의 가족,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여행도시 전주 크리스마스 메시지 캠페인 영상'을 제작, 22일부터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안부를 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전주를 꼭 가봐야 할 도시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영상은 전주시 글로벌 유튜브 채널(visiteonju)과 인스타그램(visiteonju\_official), 전주페이스북, 외국인 커뮤니티(jonjuknowledge)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ove from Jeonju(전주에서 사랑을 담아), #Meet you later in Jeonju(전주에서 곧 만나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송출된다.

영여감사로 2년째 전주에서 거주 중인 미국인 오드리(Audrey) 씨는 "가족과 친구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회복 중"이라며 안부를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가족과 친구들이 전주를 방문해 꼭 만나기로 했다"고 전하며 곧 만나자는 희망찬 메시지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담당장은 "이번 영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친구와 떨어져 있는 외국인들과 타지에 있는 재외국민의 위로가 될 바란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언제든지 서로를 방문할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